

NEAR사무국 후원 -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2019.09.10.(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매일신문	2019 호텔 아트페어 열린다	
2	신문	대경일보	호텔에서 미술관람하세요...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개최	
3	신문	경북일보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20~22일 라한호텔서 개최	
4	신문	경북매일	포항호텔아트페어 20일부터 라한호텔서 개최	
5	신문	환경일보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개최	
6	신문	일요서울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포항 라한호텔서 개최	
7	신문	영남타임즈	호텔아트페어 2019 개최	
8	온라인	경인투데이뉴스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개최	
9	온라인	프레시안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포항 영일대 라한호텔에서 개최	
10	온라인	국제i저널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개최	
11	온라인	포커스데일리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20일 개최	

2019 호텔 아트페어 열린다

매일신문 배포 2019-09-10 12:27:46 | 수정 2019-09-10 12:27:26 |

경북 포항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영일대해수욕장의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포항호텔아트페어에 전시작품. 포항호텔아트페어운영위원회 제공

올해 주제는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라는 주제로 장미원 부근 이동 갤러리와 1층 로비와 9~10층, 컨벤션홀 5층에서 3일간이다.

포항지역 작가들은 물론 전국의 유명 갤러리, 작가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이정옥, 이철진, 한승협을 비롯 전국 100여 명의 유명작가들이 참여하며 호훈화랑, 큐브, 새오름갤러리 등 전국의 32개 갤러리에서 1천여 점의 다양한 미술품들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 대만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해 해외작가 교류 및 판매전을 함께 여는 등 규모가 더 커졌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후원으로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의 미술작품 32점도 전시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술품 경매행사, 워크샵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호텔아트페어는 숙박을 위한 공간이자 쉼의 공간인 호텔 객실과 연회장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술 전시가 갤러리에서만 진행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시를 통해 다양한 공간경험과 색다른 미술 관람의 자리를 마련한다.

장미화 위원장은 "포항호텔아트페어를 통해 미술 작품도 가까이 더 가까이서 즐기고, 감상하고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종합뉴스 문화/건강

호텔에서 미술 관람하세요..'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개최

김민지 기자 승인 2019.09.09 20:33



▲ 지난 포항호텔아트페어의 모습

포항호텔아트페어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시민들을 찾아온다.

'가까이 더 가까이'near NEAR"라는 주제로 영일대해수욕장 장미원 근처 이동 갤러리, 라한호텔 1층 로비, 9~10층, 컨벤션홀 5층에서 개최된다.

‘포항호텔아트페어’는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포항시가 후원, 아트포항운영위원회(위원장 장미화)가 포항지역 작가들을 비롯 전국의 유명 갤러리, 작가들과 함께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아트페어이다.

숙박과 쉬의 공간인 호텔 객실과 연회장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술 전시가 갤러리에서만 진행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시를 통해 다양한 공간경험과 색다른 미술 관람의 자리를 마련한다.

갤러리의 개성과 특색이 묻어나는 객실은 작품을 실제 집에 배치해 감상하는 효과와 함께, 미술시장의 흐름과 주요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격대로 실제 집에 걸기 쉬운 중소 크기의 회화 작품을 비롯해 조각, 도예, 서예, 사진 작품과 아트 상품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의 이정옥, 이철진, 한승협을 비롯, 전국 100여 명의 유명작가들이 참여해 호훈화랑, 큐브, 새오름갤러리 등 전국의 32개 갤러리에서 1천여 점의 다양한 미술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 대만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해 해외작가 교류 및 판매전을 함께 여는 등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의 미술작품 32점도 전시 될 예정이며, 미술품 경매행사, 워크샵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장미화 위원장은 “포항호텔아트페어를 통해 미술 작품도 가까이 더 가까이서 즐기고, 감상하고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10hyacinth@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일보

HOME > 문화라이프 > 공연·전시

포항호텔아트페어2019, 20~22일 라한호텔서 개최

☞ 광성일 기자 Ⓞ 승인 2019.09.10 📄 15면

|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 주제



2019. 9. 20(금)-9. 22(일)

라한호텔 9~10F / 1층 로비

컨벤션홀(5F)

영일대장미원

Pohang International Hotel Art Fair 2019

아트포항운영위원회

포항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포항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라는 주제로 장미원 부근 이동 갤러리와 1층 로비와 9~10층, 컨벤션홀 5층에서 3일간 개최된다.

포항시가 후원하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아트포항운영위원회(위원장 장미화)가 포항지역 작가들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 갤러리, 작가들과 함께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아트페어이다.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같은 장소에서 4번째를 맞는 포항호텔아트페어에는 지역의 이정옥, 이철진, 한승협을 비롯 전국 100여 명의 유명작가들이 참여하며 호훈화랑, 큐브, 새오름갤러리 등 전국의 32개 갤러리에서 1000여 점의 다양한 미술품들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 대만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해 해외작가 교류 및 판매전을 함께 여는 등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지역 청소년들의 미술작품 32점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술품 경매행사, 워크숍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포항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장미화 위원장은 “지진 이후 지열발전소를 알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던 중 가까운 이웃 지곡동에 소재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라는 국제기구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마침 가까이라는 영어 ‘near’ 철자가 같아,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자는 의미로 올해 호텔아트페어의 주제를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포항호텔아트페어를 통해 미술 작품도 가까이 더 가까워서 즐기고, 감상하고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타 지역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지역의 작가들을 타 지역 갤러리와 연결 고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한편, 호텔 아트페어(미술시장)는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홍콩, 싱가포르, 서울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숙박을 위한 공간이자 쉼의 공간인 호텔 객실과 연회장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술 전시가 갤러리에서만 진행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시를 통해 다양한 공간경험과 색다른 미술 관람의 자리

를 마련한다.

갤러리의 개성과 특색이 묻어나는 객실은 작품을 실제 집에 배치해 감상하는 효과와 함께, 현 미술시장의 흐름과 주요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격대로 실제 집에 걸기 쉬운 중소 크기의 회화 작품을 비롯해 조각, 도예, 서예, 사진 작품과 아트 상품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성일 기자

경북매일

HOME > 포항 > 일반

포항호텔아트페어 20일부터 라한호텔서 개최

윤희정기자 승인 2019.09.09 20:25

포항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자리 잡은 '포항호텔아트페어'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이라는 주제로 장미원 부근 이동 갤러리와 라한호텔 1층 로비와 9~10층, 컨벤션홀 5층에서 3일간 개최된다.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열리는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아트포항운영위원회(위원장 장미화)가 포항지역 작가들을 비롯한 전국의 유명 갤러리, 작가들과 함께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이 아트페어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타지역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지역의 작가들을 타지역 갤러리와 연결 고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4년째 열리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에는 지역의 이정옥, 이철진, 한승협을 비롯 전국 100여명의 유명작가들이 참여하며 호훈화랑, 큐브, 새오름갤러리 등 전국의 32개 갤러리에서 1천여 점의 다양한 미술품들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 대만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해 해외작가 교류 및 판매전을 함께 여는 등 그 규모가 커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지역 청소년들의 미술작품 32점도 전시될 예정이다. 또 미술품 전시를 비롯해 미술품 경매행사, 워크숍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희정기자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전국네트워크 영남권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개최

김용달 기자 승인 2019.09.09 21:31

[포항=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포항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2019. 9. 20(금)-9. 22(일)
라한호텔 9~10F / 1층 로비
컨벤션홀(5F)
영일대장미원

**Pohang International
Hotel Art Fair 2019**

아트포항운영위원회

2019년도 포스터<사진제공=포항시>

품들을 선보인다.

올해 주제는 '가까이 더 가까이'near NEAR'라는 주제로 장미원 부근 이동 갤러리와 1층 로비와 9~10층, 컨벤션홀 5층에서 3일간 개최된다.

포항시가 후원하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아트포항운영위원회(위원장 장미화)

가 포항지역 작가들을 비롯 전국의 유명 갤러리, 작가들과 함께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아트페어이다.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같은 장소에서 4번째를 맞는 포항호텔아트페어에는 지역의 이정옥, 이철진, 한승협을 비롯 전국 100여 명의 유명작가들이 참여하며 호훈화랑, 큐브, 새오름갤러리 등 전국의 32개 갤러리에서 1000여 점의 다양한 미술

이와 함께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 대만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해 해외작가 교류 및 판매전을 함께 여는 등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지역 청소년들의 미술작품 32점도 전시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술품 경매행사, 워크샵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장미화 위원장은 "지진이후 지열발전소를 알면서 우리지역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 던 중 가까운 이웃 지곡동에 소재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이라는 국제기구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마침 가까이라는 영어 'near' 철자가 같아,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자는 의미로 올해 호텔아트페어의 주제를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포항호텔아트페어를 통해 미술 작품도 가까이 더 가까워서 즐기고, 감상하고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타 지역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지역의 작가들을 타 지역 갤러리와 연결 고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한편, 호텔 아트페어(미술시장)

는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홍콩, 싱가포르, 서울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다.

김용달 기자 kimyd0308@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HOME > 지역본부 > 경북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포항 라한호텔서 개최

☎ 이성열 기자 Ⓞ 승인 2019.09.10 09:23



2019. 9. 20(금)-9. 22(일)
 라한호텔 9~10F / 1층 로비
 컨벤션홀(5F)
 영일대장미원

**Pohang International
 Hotel Art Fair 2019**

아트포항운영위원회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일요서울 | 포항 이성열 기자] 포항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포항 호텔아트페어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가까이 더 가까이'near NEAR'"라는 주제로 장미원 부근 이동 갤러리와 1층 로비와 9~10층, 컨벤션홀 5층에서 3일간 개최된다.

포항시가 후원하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아트포항운영위원회(위원장 장미화)가 포항지역 작가들을 비롯 전국의 유명 갤러리, 작가들과 함께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아트페어이다.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같은 장소에서 4번째를 맞는 포항호텔아트페어에는 지역의 이정옥, 이철진, 한승협을 비롯 전국 100여 명의 유명작가들이 참여하며 호훈화랑, 큐브, 새오름갤러리 등 전국의 32개 갤러리에서 1000여 점의 다양한 미술품들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 대만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해 해외작가 교류 및 판매전을 함께 여는 등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의 미술작품 32점도 전시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술품 경매행사, 워크숍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장미화 위원장은 “지진이후 지열발전소를 알면서 우리지역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 던 중 가까운 이웃 지곡동에 소재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라는 국제기구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마침 가까이라는 영어 ‘near’ 철자가 같아,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자는 의미로 올해 호텔아트페어의 주제를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포항호텔아트페어를 통해 미술 작품도 가까이 더 가까이서 즐기고, 감상하고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타 지역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지역의 작가들을 타 지역 갤러리와 연결 고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한편, 호텔 아트페어(미술시장)는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홍콩, 싱가포르, 서울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숙박을 위한 공간이자 쉼의 공간인 호텔 객실과 연회장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술 전시가 갤러리에서만 진행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시를 통해 다양한 공간경험과 색다른 미술 관람의 자리를 마련한다.

갤러리의 개성과 특색이 묻어나는 객실은 작품을 실제 집에 배치해 감상하는 효과와 함께, 현 미술시장의 흐름과 주요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격대로 실제 집에 걸기 쉬운 중소 크기의 회화 작품을 비롯해 조각, 도

예, 서예, 사진 작품과 아트 상품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열 기자

기사작성: 2019-09-09 AM 11:23

【포항】 호텔아트페어 2019 개최

포항호텔아트페어(미술시장)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UYN.CO.KR

올해 주제는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 라는 주제로 장미원 부근 이동 갤러리와 1층 로비와 9~10층 컨벤션홀 5층에서 3일간 개최된다.

포항시가 후원하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아트포항운영위원회가 포항지역 작가들을 비롯 전국의 유명 갤러리, 작가들과 함께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아트페어이다.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같은 장소에서 4번째를 맞는 포항호텔아트페어에는 지역의 이정옥, 이철진, 한승협을 비롯 전국 100여 명의 유명작가들이 참여하며 호훈화랑, 큐브, 새오름갤러리 등 전국의 32개 갤러리에서 1000여 점의 다양한 미술품들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 대만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해 해외작가 교류 및 판매전을 함께 여는 등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후원으로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의 미술작품 32점도 전시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술품 경매행사, 워크샵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장미화 위원장은 "지진이후 지역발전소를 알면서 우리지역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 던 중 가까운 이웃 지곡동에 소재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라는 국제기구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마침 가까이라는 영어 near 철자가 같아,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자는 의미로 올해 호텔아트페어의 주제를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포항호텔아트페어를 통해 미술 작품도 가까이 더 가까이서 즐기고, 감상하고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트페어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타 지역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지역의 작가들을 타 지역 갤러리와 연결 고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한편, 호텔 아트페어는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홍콩, 싱가포르, 서울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숙박을 위한 공간이자 쉼의 공간인 호텔 객실과 연회장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술 전시가 갤러리에서만 진행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시를 통해 다양한 공간경험과 색다른 미술 관람의 자리를 마련한다.

갤러리의 개성과 특색이 묻어나는 객실은 작품을 실제 집에 배치해 감상하는 효과와 함께, 현 미술시장의 흐름과 주요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격대로 실제 집에 걸기 쉬운 중소 크기의 회화 작품을 비롯해 조각, 도예, 서예, 사진 작품과 아트 상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및 안내 : 포항호텔아트페어(<http://www.artpohang.com/>) 참고

신미영 기자dcht7000@naver.com

[영남타임즈.kr uyn@uyn.co.kr] 2019-09-09 AM 11:23

<Copyright (c) 영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개최

기사게재일: [2019-09-09 15:01:01]

이도협 기자



▲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개최

포항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가까이 더 가까이‘near NEARW’”라는 주제로 장미원 부근 이동 갤러리와 1층 로비와 9~10층, 컨벤션홀 5층에서 3일간 개최된다.

포항시가 후원하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아트포항운영위원회(위원장 장미화)가 포항지역 작가들을 비롯 전국의 유명 갤러리, 작가들과 함께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아트페어이다.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같은 장소에서 4번째를 맞는 포항호텔아트페어에는 지역의 이정옥, 이철진, 한승협을 비롯 전국 100여 명의 유명작가들이 참여하며 호훈화랑, 큐브, 새오름갤러리 등 전국의 32개 갤러리에서 1000여 점의 다양한 미술품들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 대만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해 해외작가 교류 및 판매전을 함께 여는 등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의 미술작품 32점도 전시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술품 경매행사, 워크샵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장미화 위원장은 “지진이후 지열발전소를 알면서 우리지역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 던 중 가까운 이웃 지역동에 소재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라는 국제기구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마침 가까이라는 영어 ‘nearW’ 철자가 같아,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자는 의미로 올해 호텔아트페어의 주제를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W’”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포항호텔아트페어를 통해 미술 작품도 가까이 더 가까워서 즐기고, 감상하고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타 지역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지역의 작가들을 타 지역 갤러리와 연결 고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한편, 호텔 아트페어(미술시장)는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홍콩, 싱가포르, 서울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숙박을 위한 공간이자 쉼의 공간인 호텔 객실과 연회장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술 전시가 갤러리에서만 진행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시를 통해 다양한 공간경험과 색다른 미술 관람의 자리를 마련한다.

갤러리의 개성과 특색이 묻어나는 객실은 작품을 실제 집에 배치해 감상하는 효과와 함께, 현 미술시장의 흐름과 주요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격대로 실제 집에 걸기 쉬운 중소 크기의 회화 작품을 비롯해 조각, 도예, 서예, 사진 작품과 아트상품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포항/이도협 기자(angelic0506@naver.com)

-경인투데이뉴스 제공-

프레시안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포항 영일대 라한호텔에서 개최

최종수정 2019.09.09 15:03:15 | 강신윤 기자(=포항) | max0709@hanmail.net



2019. 9. 20(금)-9. 22(일)
라한호텔 9~10F / 1층 로비
컨벤션홀(5F)
영일대장미원

Pohang International Hotel Art Fair 2019

아트포항운영위원회

©포항시

포항호텔아트페어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라는 주제로 장미원 부근 이동 갤러리와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라한호텔에서 3일간 개최된다.

포항시가 후원하는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아트포항운영위원회(위원장 장미화)가 포항지역을 비롯, 전국의 유명 갤러리, 작가들과 함께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4번째를 맞는 포항호텔아트페어에는 지역의 이정옥, 이철진, 한승협을 비롯 전국 100여 명의 유명작가들이 참여하며 호훈화랑, 큐브, 새오름갤러리 등 전국의 32개 갤러리에서 1000여

점의 다양한 미술품들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 대만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해 해외작가 교류 및 판매전을 함께 여는 등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의 미술작품 32점도 전시 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미술품 경매행사, 워크샵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장미화 위원장은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자는 의미로 올해 호텔아트페어의 주제를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포항호텔아트페어를 통해 미술 작품도 가까이 더 가까워서 즐기고, 감상하고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타 지역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지역의 작가들을 타 지역 갤러리와 연결 고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호텔 아트페어(미술시장)는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홍콩, 싱가포르, 서울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다.

강신윤 기자(=포항) (max0709@hanmail.net)

참달기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문화·연예 축제 포항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개최

오는 20일부터 "가까이 더 가까이'near NEAR'" 주제로 열려

석경희 기자 승인 2019.09.09 15:23



2019. 9. 20(금)-9. 22(일)
 라한호텔 9~10F / 1층 로비
 컨벤션홀(5F)
 영일대장미원

**Pohang International
 Hotel Art Fair 2019**

아트포항운경수원회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포항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가까이 더 가까이'near NEAR'"라는 주제로 장미원 부근 이동 갤러리와 1층 로비와 9~10층, 컨벤션홀 5층에서 3일간 개최된다.

포항시가 후원하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아트포항운영위원회가 포항지역 작가들을 비롯 전국의 유명 갤러리, 작가들과 함께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아트페어이다.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같은 장소에서 4번째를 맞는 포항호텔아트페어에는 지역의 이정옥, 이철진, 한승협을 비롯 전국 100여 명의 유명작가들이 참여하며 호훈화랑, 큐브, 새오름갤러리 등 전국의 32개 갤러리에서 1000여 점의 다양한 미술품들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 대만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해 해외작가 교류 및 판매전을 함께 여는 등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장미화 위원장은 “가까이라는 영어 ‘near’ 철자가 같아,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자는 의미로 올해 호텔아트페어의 주제를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로 정했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jj@ij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focus *daily*

HOME 전국 대구·경북

'포항호텔아트페어 2019' 20일 개최

22일까지 3일간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라한호텔에서

김재욱 기자

승인 2019.09.09 12:03



지난해 행사 사진.

(포항=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 = 포항의 대표적인 아트페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가 9월20~22일까지 3일간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라는 주제로 장미원 부근 이동 갤러리와 1층 로비와 9~10층, 컨벤션홀 5층에서 3일간 개최된다.

포항시가 후원하고 있는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아트포항운영위원회가 포항지역 작가들을 비롯 전국의 유명 갤러리, 작가들과 함께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아트페어이다.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같은 장소에서 4번째를 맞는 포항호텔아트페어에는 지역의 이정옥, 이철진, 한승협을 비롯 전국 100여 명의 유명작가들이 참여하며 호훈화랑, 큐브, 새오름갤러리 등 전국의 32개 갤러리에서 1000여 점의 다양한 미술품들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 대만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해 해외작가 교류 및 판매전을 함께 여는 등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의 미술작품 32점도 전시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술품 경매행사, 워크샵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장미화 위원장은 "지진이후 지열발전소를 알면서 우리지역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 던 중 가까운 이웃 지역동에 소재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라는 국제기구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마침 가까이라는 영어 'near' 철자가 같아,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자는 의미로 올해 호텔아트페어의 주제를 "가까이 더 가까이 'near NEAR'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포항호텔아트페어를 통해 미술 작품도 가까이 더 가까워서 즐기고, 감상하고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포항호텔아트페어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타 지역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지역의 작가들을 타 지역 갤러리와 연결 고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한편, 호텔 아트페어(미술시장)는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홍콩, 싱가포르, 서울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숙박을 위한 공간이자 쉼의 공간인 호텔 객실과 연회장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술 전시가 갤러리에서만 진행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시를 통해 다양한 공간경험과 색다른 미술 관람의 자리를 마련한다.

갤러리의 개성과 특색이 묻어나는 객실은 작품을 실제 집에 배치해 감상하는 효과와 함께, 현 미술시장의 흐름과 주요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격대로 실제 집에 걸기 쉬운 중소 크기의 회화 작품을 비롯해 조각, 도예, 서예, 사진 작품과 아트 상품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김재욱 기자 jukim6162@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